

독도의 진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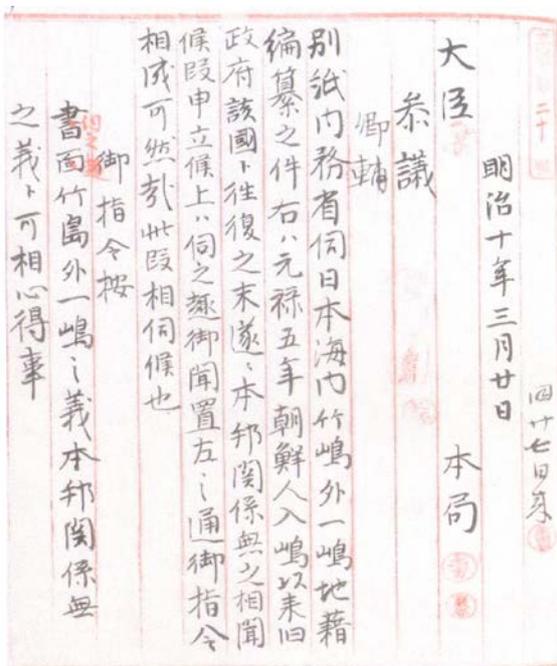
-태정관 지령문-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편

1. 일본의 최고행정기관 태정관(Dajokan)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 외의 땅이라는 공문서를 하달(1877)

1877년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이었던 태정관(내각의 전신)이 울릉도와 독도를 다시 조사하여 '두 섬이 17세기말에 일본과 관계가 없는 섬이 되었음을 명심하라'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 문서, '태정관 지령문'은 현재까지도 법적으로 유효하므로 일본정부는 이 문서의 열람을 사실상 금지해 버렸다. '태정관 지령문'은 일본의 도쿄 다케바시(竹橋)에 있는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877년, 일본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겐로쿠 5년(1692)을 계기로 일본영토 외로 공식확인 되었음을 명심하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하달.

일본 측은 '태정관 지령문' 속에 기재된 <다케시마 외 일도> 즉 <울릉도와 그 밖에 있는 한 섬>이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한 것이고 <외일도>를 독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박을 해 왔다. 그러나 '외일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태정관 지령문> 속에 있다.

<다음에 한 섬이 있다. '마쓰시마'라고 부른다. 주위는 약 30정(약 3.3km), 다케시마와 동일 항로에 있고 오키 섬에서 80리 정도의 거리다. 나무나 대나무는 드물고 물고기와 짐승을 잡을 수 있다.>

일본어 원문 : 「次ニ一島アリ松島ト呼フ周圍三十町許竹島ト同一線路ニ在リ隱岐ヲ距ル八拾里許樹竹稀ナリ亦魚獸ヲ産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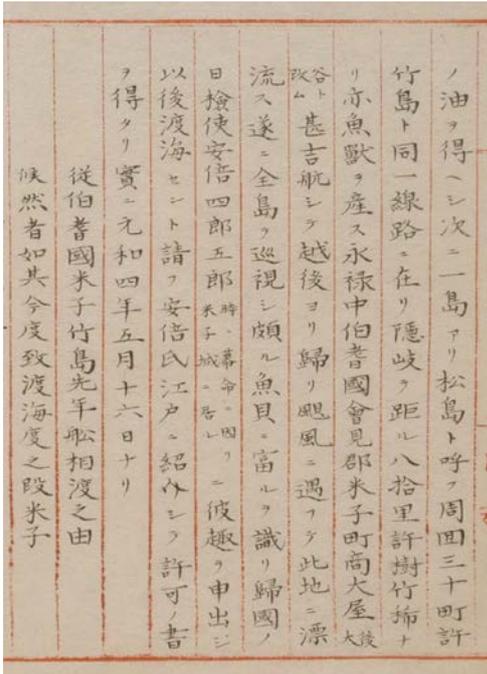
이 인용문은 '외일도'가 '마쓰시마(=독도)라고 확인해 주고 그 주위는 약 30정(町), 오키섬로부터 마쓰시마까지의 거리를 약 80리(里)로 언급했다.

정(町)이란 일본의 길이의 단위로 약 109m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30정은 약 3.3km이다. 독도의 둘레는 동도와 서도를 따로따로 측정해서 합하면 약 4km이지만 동도와 서도를 한 섬으로 보고 그 외주를 측량하면 3.3km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주위는 독도의 주위인 것이다.

그리고 오키 섬에서 마쓰시마(=독도)까지의 거리를 약 80리로 하고 있으나 일본은 17세기경부터 해상의 '리'를 '해리'와 비슷한 길이로 사용해 왔으므로 이것을 '해리'로 계산할 수 있다. 1해리는 1.852km이므로 '80리(80해리)'는 약 149km가 된다.

그러므로 오키 섬과 독도간의 실제 거리 157km에 매우 가까운 거리가 된다.

즉 '태정관 지령문' 속에 나오는 '외일도'란 바로 독도다. 일본 측은 이 내용이 일본 측 독도영유권 주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왜곡하거나 내용자체를 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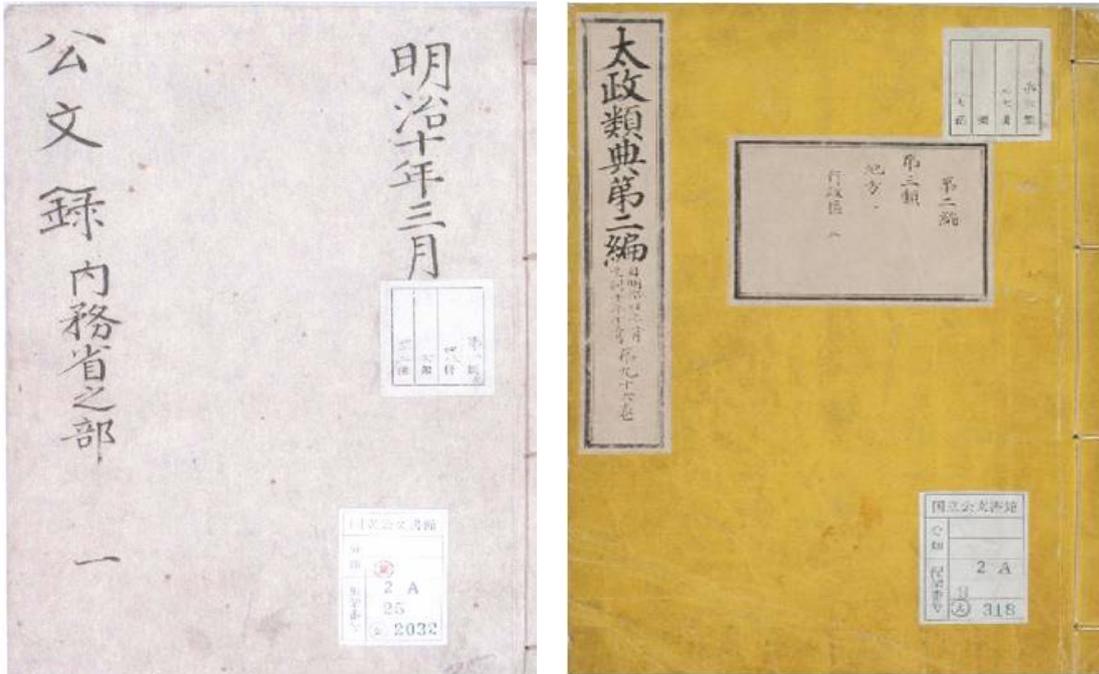
이 페이지 첫 3행이 '외일도'가 마쓰시마, 바로 독도라고 밝힌 부분이다.

2. 이소타케시마(磯竹島) 약도

태정관 지령문에는 두 종류가 있고 둘 다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하나는 현재까지 우리가 살펴본 문서이고 정식 명칭을 『일본해내 다케시마 외일도 지적 편찬방사(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이다. 이 문서는 내무성이 태정관에 올려 지시를 요청한 문서이고 내무성의 『공문록(公文錄)』이라는 묶음 서류집에 보관되어 있다.

또 하나는 『일본해 내 죽도 외일도를 판도 외로 정한다(日本海内竹島外一島ヲ版図外ト定ム)』라는 문서다. 이 문서가 태정관이 내무성에 하달한 문서이고 『태정류전(太政類典)』이라는 묶음 서류집 속에 들어 있다.



두 종류의 태정관 지령문이 각각 수록되어있는 <공문록>과 <태정류전>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은 '태정관 지령문'이 들어 있는 <공문록> 원본열람을 요청하면 항상 직원이 '필사본'을 들고 나온다. 필사본이란 원본을 읽기 어려운 초서체로 고쳐 쓴 문서를 말한다.

일본정부가 '필사본'을 만든 이유는, 원본에는 태정관이 일본 영토 외로 정한 두 섬이 바로 울릉도와 독도임을 나타내는 약도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약도는 '이소타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라는 명칭으로 울릉도, 독도, 그리고 오키섬의 위치관계를 표시해 놓은 지도이고 일본영토 외가 된 '외일도'가 바로 독도라는 것을 명백히 표시했다.

이 약도의 마쓰시마, 즉 독도는 2~3개의 암초들과 함께 두 섬(동도와 서도)으로 그려져 있고 두 섬 위에 '마쓰시마(松島)'라고 명료하게 적혀 있다. 바로 이 약도야말로 한눈으로 '일본 영토 외'로 결정된 두 섬이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이 약도를 숨기기 위해 필사본에는 약도를 붙이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그렇게 연구자들의 눈을 속이는 방법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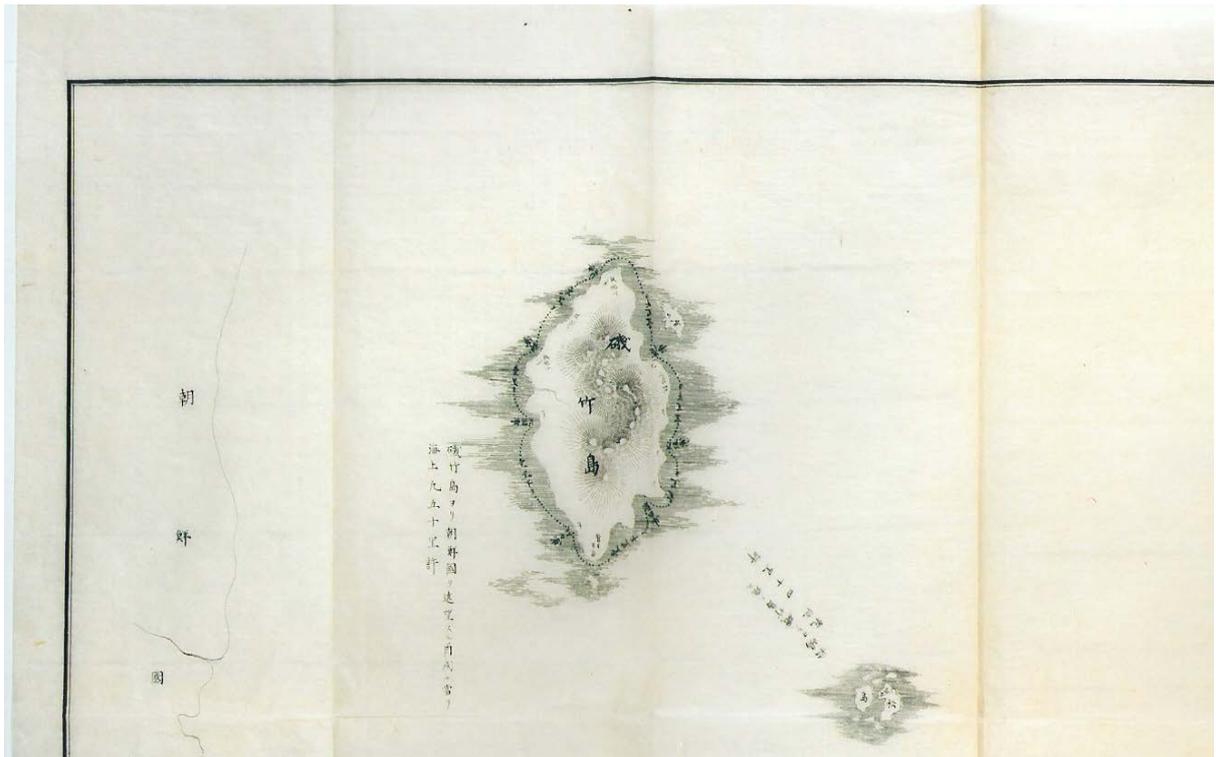
大正
 御輔
 大正
 御輔
 明治十年三月廿日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藉
 編纂之件右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
 政府該國下往復之末遂本邦關係與之相聞
 候段申立候上伺之趣御聞置左一通御指令
 相成可然於此段相伺候也
 御指令按
 書面竹嶋外一嶋一義本邦關係無
 之義下可相心得事

태정관 지령문 첫 페이지 원본(전계): 열람 금지

六二

大正
 御輔
 大正
 御輔
 明治十年三月廿日
 別紙内務省伺日本海内竹嶋外一嶋地藉
 編纂之件右元禄五年朝鮮人入嶋以来旧
 政府該國下往復之末遂本邦關係與之相聞
 候段申立候上伺之趣御聞置左一通御指令
 相成可然於此段相伺候也
 御指令按
 書面竹嶋外一嶋一義本邦關係無
 之義下可相心得事

태정관 지령문 첫 페이지 필사본(가짜 원본): 원본을 읽기 힘든 초서체로 필사하여 연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소타케시마 약도'를 빼서 열람자들을 속이고 있다. 열람가능



태정관 지령문 첨부지도인 '이소타게시마 약도'(울릉도 독도 부분) : 필사본에서는 세인의 눈을속이는 목적으로 삽입되어 있지 않다.



'이소타게시마 약도'의 독도 부분 확대도. 마쓰시마(松島=독도)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

3. 결론

일본정부는 정부자체가 1696년, 1870년, 1877년 세 번에 걸쳐 공식문서로 17세기말에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 조선영토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즉 에도막부와 메이지 정부의 자료들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현 일본정부의 주장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고 독도의 영유권이 한국에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현 일본정부는 이 사실을 자료 왜곡과 은폐 등의 부당한 수단을 동원해 일본국민과 세계인을 속이고 있다.